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10. The first murder”**

**Scripture: Genesis 4:1-15**

**Date preached: March 8<sup>th</sup> 2026**

**Scripture: Genesis 4:1-15**

**1** Now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and said, “I have acquired a man from the LORD.” **2** Then she bore again, this time his brother Abel. Now Abel was a keeper of sheep,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3** And in the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an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to the LORD. **4** Abel also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And the LORD respected Abel and his offering, **5** but He did not respect Cain and his offering. And Cain was very angry, and his countenance fell.

**6** So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countenance fallen? **7**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lies at the door. And 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should rule over it.”

**8** Now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9**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ere *is* Abel your brother?”  
He said, “I do no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10** And He said, “What have you done?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11** So now you *are* cursed from the earth,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12** When you till the ground, it shall no longer yield its strength to you. A fugitive and a vagabond you shall be on the earth.”

**13** And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greater than I can bear! **14** Surely You have driven me out this day from the face of the ground; I shall be hidden from Your face; I shall be a fugitive and a vagabond on the earth, and it will happen *that* anyone who finds me will kill me.”

**15** And the LORD said to him, “Therefore, whoever kills Cain, vengeance shall be taken on him sevenfold.” And the LORD set a mark on Cain, lest anyone finding him should kill him.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 나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파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고 내가 주의 낫을 밟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파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사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 Review – The fall -part 2

In last week's sermon we saw God's response to the sin of Adam and Eve. As I have told told you on numerous occasions there is always a consequence when we sin. To be quite plain you are being naïve at best or foolish at worst if you think you can sin with impunity. At times the consequences may be immediate. You will immediately suffer for your sin. On other occasions the consequences may not fully take effect until some future time. But either way sin always produces a negative outcome. It is therefore never something to brush aside or treat lightly. As the Puritan John Owen so memorably wrote.

*Be killing sin or it will be killing you.*

When Adam and Eve rebelled against God and ate of the forbidden fruit God was not slow to act. His perfect world had remained in its pristine state for just a short time. Now sin had crept in and corrupted it. God could not idly sit by. He quickly and decisively passed judgment on all those involved; the snake, Satan, Eve and finally Adam. Let us briefly now touch upon what happened.

God dealt first with the snake creature. As a punishment for its role in the harming of human beings it was cursed in two ways. Firstly, the snake was cursed to hold the lowest position among all of God's created order. From now on the snake would be looked down upon and reviled. Secondly, and clearly related to the first curse the snake was to be reduced to slithering along on its belly. It would presumably lose its legs, or the upright posture it had pre-fall and from now would be doomed to crawl through the dirt.

Then God turned to impose His punishment on Satan. Satan had tried to trick Eve into trusting and believing in him and his lies. As a result of his deception from this time on there would be hostility or enmity between Satan and his followers and God and his followers. Furthermore God prophecies that one day the Seed of the woman would bruise Satan's head. This is of course a prophecy foretelling of the Messiah. He would arrive on earth uniquely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human father. He would then deliver a mortal blow to Satan. This happened exactly as God said it would. Satan did indeed bruise Jesus' heel at the crucifixion but our Lord and saviour crushed Satan's head. In His completed work on the cross the Lord Jesus Christ forever destroyed the plans of Satan.

After this God turned his attention to Eve. Her punishment involved an increase in sorrow and pain and frustrated ambition in the marital relationship. The sorrow and pain were connected with being a woman in the world and with childbirth.

From this time on the pain associated with pregnancy, labour and giving birth would be greatly magnified. Also she is told that she will feel a desire for her husband. As I said last time this refers to a desire to have the role of leadership and control that God placed upon the husband. As a result women will constantly be having to resist the urge to want to usurp control.

Finally, God addressed Adam. As the federal head, or the one God had given the authority to lead and guide the fall fell squarely upon his shoulders. As the common idiom says, the buck stopped with him! The punishment that God placed upon him centred upon his working life. The husband and father is given the duty of working to provide for the family. But from this point on his working life would become much harder. Growing and producing food would be challenging. The ground

which previously had been co-operative would now actively work against man's efforts. Thorns and thistles would further hinder man's efforts. To make a success of things would require hard work and sweat.

Adam is also told that the end of his toil will now be physical death. He will one day return to the dust from whence he came. This hadn't been God's original plan but man's disobedience now makes this a reality.

We then read that Adam named his wife Eve meaning "life giver." God then drives the couple out of the garden and places cherubim and a flaming sword to bar them from ever re-entering and eating from the tree of life. And with this man's time in the garden comes to an end.

Today we will find out what happens on the outside. But before we do let's pray.

**복습- 타락The Fall -part 2**

지난주 설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으면 항상 결과가 따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서 대가를 즉시 치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결과가 완전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금지한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자체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은 잠시 동안만 순수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와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무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관련자들, 즉 뱀, 사탄, 하와, 그리고 아담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뱀을 상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친 죄에 대한 벌로 뱀은 두 가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첫째, 뱀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뱀은 멸사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저주와 연관된 저주로, 뱀은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리를 잃게 되거나, 타락 이전의 꿈은 자세를 잃고 흉바닥을 기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하나님은 사탄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여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이때부터 사탄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젠가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인간 아버지의 개입 없이 독특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실 때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사탄의 계획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녀의 형벌은 슬픔과 고통의 증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좌절된 욕망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세상에서 여자로서 사는 것 그리고 출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임신, 진통, 출산과 관련된 고통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남편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주도권과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주도권을 쥐고 싶은 충동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과 가족을 인도할 권위를 부여받은 가장으로서

아담은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은 그의 노동 생활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장이자 아버지인 아담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그의 일은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식량을 재배하고 거두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협조적이었던 땅은 이제 인간의 노동을 방해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고된 노동과 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그의 삶의 끝이 육체적인 죽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자 life giver"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 천사들과 불 칼을 두어 그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에덴동산 삶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동산 비깅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합시다.

### **1 Now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Cain, and said, "I have acquired a man from the LORD."**

We now move into the period of history following the fall and man's expulsion from the garden. This of course has been the vast majority of human history. Today we are still living in the fallen world.

The story picks up with Adam and Eve having settled somewhere outside the garden. We are told that Adam "knew" Eve. This is the first reference in the bible to sex. To "know" (*yada*) is a polite way (a gentle euphemism) for saying that they had sexual relations. The term is used frequently throughout the Bible in this sense (see Genesis 4:17, 4:25, 38:26, Judges 11:39, 1 Samuel 1:19, Matthew 1:25). To "know" then speaks of a very special and intimate kind of relationship.

Given that Adam and Eve were perfectly created and degeneration and decay had not yet led to genetic decline it should not surprise us to learn that Eve soon conceived. She gave birth to a bouncing baby boy and he was named Steve. Sorry, I meant to say Cain. He was the first human being born in the natural way.

Would you call your child Cain? I'm not sure that it would be high up on my list of possible boys names but others clearly disagree. Did you know that one in every 78,023 Americans is named Cain. This means that in the US there are approximately 4,490 men or boys called Cain.

The name Cain (*qayin*) is another example of Hebrew word play. Adam remember sounds very similar to the word for "land" or "soil" (*adamah*). The name Cain sounds a lot like the Hebrew (*qānîti*) term for "I have gotten" or "I have obtained."

So in saying this Eve is affirming that she has a male child and that it is God who has helped her achieve this. She is grateful that she has been allowed to participate in God's creative process.

So Cain's birth is a happy and joyful occasion. This is because Adam and Eve recognise it as being the fulfilment of God's intent to continue the human race. They would due to the curse return to the dust but the human race would continue. Some, including notable scholars like Arnold Fructenbaum have even speculated that Eve believed that she had given birth to the promised divine seed. That what she is really saying here is, Look I have given birth to the Lord! The one God promised.

Sadly as we shall soon discover the joy of his arrival will be marred by his future actions.

###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knew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라**

이제 인간의 타락과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물론 타락 이후 삶이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 밖 어딘가에 정착한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knew"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성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알다know"( *Or'adyada*)는 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창세기 4:17, 4:25, 38:26, 사사기 11:39, 사무엘상 1:19, 마태복음 1:25 참조). "알다know"는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완벽하게 창조되었고, 타락 이후에 토호와 인간 유전 정보의 퇴보가 아직 일어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이브가 곧 임신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은 스티브였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가인Cain 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최초의 인간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카인Cain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자라면 아들 이름으로 고려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인 78,023 명 중 한 명꼴로 카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즉, 미국에는 약 4,490 명의 남자가 카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qayin*)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언어 유희의 또 다른 예입니다. 아담은 "땅" 또는 "흙"을 뜻하는 단어(*adama h*)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가인은 히브리어로 "내가 얻었다I have gotten" 또는 "내가 획득했다I have obtained"라는 뜻의 단어(*qānītī*)와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하와가 자신이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셨음을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탄생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카인의 탄생으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그분의 의도를 성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저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인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놀드 프록텐바움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신성한 씨를 낳았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하와가 실제로는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를 낳았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슬프게도, 카인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은 앞으로 볼 그의 행적 때문에 어두워질 것입니다.

## **2 Then she bore again, this time his brother Abel. Now Abel was a keeper of sheep,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Buoyed by their previous success Adam and Eve “get to know” each other again and another child is conceived. A second son, a brother to Cain is born. He is named Abel. The name Abel (Hebrew *Hebel*) means "breath," "vapour," or "what ascends." It's a very prophetic name given what will be the comparative shortness of his life. It's worth us remembering that nearly all Bible names were significant. They were usually conferred with reference to some circumstance connected either with the birth of the child, or some future endeavour they will undertake.

Another possibility surrounding the name “Abel” is that it captures Eve's disillusionment that she will not be the one to give birth to the Messiah. This is because the name depending on the context can mean “vanity” (see Ecc 1:2). So Eve in this understanding was hoping in vain to be the one who would bear God's redeemer.

We then learn a little about the particular vocations the two brothers chose. Abel looked after sheep and probably goats, he was a shepherd. Cain farmed the land. In this respect Cain followed in his father's footsteps. Both of these occupations are good and noble. I say this because some over the centuries have tri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professions and declare one to be good and the other bad. Abel was engaged in a worthy and God pleasing pursuit and Cain was not. This is not the

case. Scripture has much to say about both professions.

The bible presents us with many notable shepherds including Abraham, Moses and David. But it also speaks positively about farmers and their work. I know that prostitution is often referred to as being the oldest profession, but it's actually farming. Notable biblical characters who farmed the land include, Adam (the first farmer), Noah, Amos and Boaz. So let us not fall into the trap of disparaging one of these jobs over another. That first family needed the important work of both brothers to be done. Abel's efforts provided wool, animal skins, milk and animals for sacrifice. Cain's hard work brought food to the table.

## 2 그가 또 기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기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기인의 탄생으로 인해 기뻐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 동참하여 두 번째 아이를 양태합니다. 기인의 동생인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아벨(Hebel)입니다. 아벨(히브리어 Hebel)은 "숨(breath)", "증기(vapour)", 또는 "올라가는 것(what ascends)"을 의미합니다. 그의 수명이 비교적 짧았던 것을 고려할 때 매우 예언적인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대개 아이의 출생이나 미래에 행하게 될 일과 관련하여 지어졌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하와가 메시아를 낳을 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문맥에 따라 "허됨(vanity)"을 뜻하기 때문입니다(전도서 1:2 참조). 따라서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를 낳을 거라는 희망이 헛된 것임을 알았다는 견해입니다.

이 구절은 형제의 직업에 대해 기록합니다. 아벨은 양과 아마도 염소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기인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기인은 아버지인 아담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두 직업 모두 선하고 고귀합니다. 수 세기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직업을 구분하고 하나는 좋고 다른 하나는 나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벨은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기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직업 모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성경은 농부와 그들의 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매춘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농업입니다. 땅을 경작했던 잘 알려진 성경 인물로는 아담(최초의 농부), 노아, 아모스,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직업 중 하나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최초의 가족에게는 두 형제가 했던 일이 모두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아벨은 양털, 동물 가죽, 우유, 그리고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제공했습니다. 기인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 3 And in the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an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to the LORD.

The verse begins by telling us that what we are reading here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time." Literally speaking this expression means "At the end of days," or, "at an appointed or specific time." Some scholars argue therefore that what is actually in view here is a specially designated time of worship and sacrifice. Possibly this was at harvest time or the end of the agricultural year.

If this were the case then this would have been an annual event, and presumably one they had watched done or even participated in on other occasions. John MacArthur proposes that it may have been at the time when the brothers reached maturity. The so-called "age of accountability." It therefore marked the time when they had become old enough to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o follow God, or go their own way.

Others adopt a more general interpretation of this expression. They understand it to mean that after an indeterminate period of time has passed we are picking up the narrative. This may have been fifteen, or twenty years, or perhaps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How we might ask did they know when to make this offering and what to do. We must assume that God had given them instructions but these details are not recorded for us in the bible. This should

not alarm us. The bible for obvious reasons cannot detail every single event or act that transpired over the course of its long history. It never claims to reveal everything. Also, let us not forget that they had parents in Adam and Eve who knew all about the consequences of not obeying God. I'm sure they impressed upon their sons the need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liv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So it became the time to make an offering to God. This was most likely an offering of thanks or gratitude. They were going before the Lord to thank Him for His grace in providing them with all they needed to survive. As part of this worship offering they are to offer Him the “first fruits.” In Cain's case this meant the first and finest produce he had grown. In Abel's case the first and finest animal. These things were to be given to the Lord as an act of gratitude.

Let us not overlook the significance of this event and what it meant. The fact that they are doing this means that they still enjoyed a level of intimacy with God. God had not abandoned fallen man and equally the first human family still acknowledged God and wanted a relationship with Him.

As a farmer, a tiller of the land Cain is bringing to God a suitable offering, the product of his work on the land (**the fruit of the ground**). Over the course of time this came to mean an offering of grain, but in Cains' case it may have included a selec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he had produced.

Let us read on and find out what Abel did.

### 3 세월이 지난 후에 기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구절은 이 일이 "**세월이 지난 후에** in the process of time"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에 At the end of days" 또는 "특정한 때에 at an appointed or specific time"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때가 특별히 정해진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때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수확기 또는 농사철이 끝나는 시기였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연례 행사였을 것이고, 형제들은 그 전에도 지켜 보았거나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형제들이 장성한 시기, 즉 "책임질 나이 age of accountability"에 이르렀을 거라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언급한다고 이해합니다. 이 시간이 15 년, 20 년, 또는 훨씬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 세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랜 역사 동안 일어났던 사건과 행위를 모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랐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함을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감사의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예배 제물로 그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 first fruits"를 바쳐야 했습니다. 기인에게 그는 그가 재배한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농산물을 의미했습니다. 아벨의 경우도 첫 번째이자 가장 좋은 가축을 의미했습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찬가지로 첫 인류 가족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분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농부로서 땅을 경작하던 기인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 즉 자신이 일군 농산물(**땅의 소산 the fruit of the**

ground)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물은 곡식을 의미하였지만, 가인의 경우에는 그가 재배한 다양한 과일과 채소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벨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4 Abel also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And the LORD respected Abel and his offering,**

We turn next to Abel. He, too brought an offering before the Lord to sacrifice. In Abel's case as a shepherd he brought a firstborn lamb or goat from his flock along with additional portions of their fat.

We then read the all important detail that the Lord respected, or accepted Abel's offering. How you might ask was His approval expressed. It does not say in scripture but some have speculated that God sent down fire to consume the sacrifice. We saw this exact thing happen with the prophet Elijah on Mount Carmel (1 Kings 18:38). What we can say with certainty is that what Abel offered was pleasing to God and that God made this known to him. This is much later reaffirmed to us in the book of Hebrews. Abel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first to be mentioned in chapter eleven's "hall of faith." We read the following in verse 4 of that chapter.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s; and through it he being dead still speaks.**

This affirms to us that Abel came before the Lord with a pleasing, an excellent sacrifice. I would also argue that this strongly suggests that God had given them some insight into how this act of worship ought to be carried out. It's difficult after all to meet a standard or an expectation when it is not clearly laid out. At school a teacher tells their students what they expect. If your work meets these standards I will be pleased and will award you with an A grade.

Abel then was properly motivated. He had faith in God and this was reflected in his approach to worship. This is because to offer your firstborn, your finest animal is an act of trust. In a world in which the margins between survival and extinction were narrow animals were incredibly precious. To take one of your animals kill it and then offer it as a sacrifice was a serious thing to do. What if no other animals were born. You might suffer or even perish. So what you were in effect doing was saying that you trusted that God would provide for your needs. He would give you back the animal you had offered along with others beside. He would honour your sacrifice with blessing.

It also indicates that Abel recognised that one must come before the Lord in the way and manner that He dictates. We are not at liberty to approach Him in a way that seems right or fitting to us. It is God who dictates what worship looks like not us.

We sadly see this man centred approach to worship echoed across many churches today. Worship is for us and therefore it can be organised and structured in a way that pleases people. God and what He wants comes a distant second to what we want.

This as we shall now discover was Cain's big mistake.

####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또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목자였던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함께 바쳤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셨다고 추측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열왕기상 18:38). 확실한 것은 아벨이 바친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훨씬 후에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아



He didn't bring his prize winning pumpkin, or his award-winning apples! So it appears as if Cain was somewhat indifferent about the offering. He was simply going through the motions. He saw it as being a duty or a chore that had to be done but was not something that he truly cared about. It is this indifference takes us to the second reason.

The second reason for why God rejected Cain relates to character. The following is a very important point. Get ready to highlight or underline what I say next. God does not see worship apart from the worshipper. God looks not only on the external acts themselves, but also on the inner heart motivations. So when Abel came before the Lord he did so in a humble and respectful way. He offered God his best. But more importantly his heart, his motivation was right before God. Cain came along offered some things he had scraped together but paid little heed to his heart before the Lord. Even if his offering had been the best (it wasn't) the fact that his attitude and motivation was wrong would still have displeased God.

Cain's real problem was that he lacked faith. Without real faith he could never be properly motivated towards righteous living. Because he had no faith he was unable to live in a way that was pleasing or acceptable to God.

We then read that God let Cain know that his offering was not acceptable. Cain's response reflects his poor character. A true believer in God would have been broken and contrite at this rejection. Someone who truly sought to please God would have fallen face first before the Lord apologised for their sin and endeavoured to change their heart. This was not how Cain responded. He reacted by becoming angry and resentful. He was mad when he should have been meek. This should not surprise us given what we later learn about this man. The New Testament makes it absolutely clear that Cain was evil. In Jude 11 he is included in the company of the prophet for hire Balaam, and the rebel Korah. These are all men Jude tells us who have given into pride and greed and in doing so have embraced evil.

Let's find out how God responds to Cain's anger.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느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 이런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견해는 가인이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적 죽음의 원칙을 제정하셨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얻어야 했다. 즉,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고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했다. 동물의 피가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것이었다. 가인은 당근, 사과, 자두를 가져왔지만 피가 없었다. 즉, 그는 잘못된 제물을 가져왔다. 동물이 아닌 식물(채소)을 가져 온 것이다.

이 견해는 쉬운 답이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곡식 제물을 합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레위기 2:1-16).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물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벨의 제물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랍비들이 가르칠 때 모두 강조하는 점은 아벨이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물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제물을 바쳤다고만 기록했을 뿐, 그의 소산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강조는 없습니다.

그는 최상급의 호박이나 사과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제물에 대해 다소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 또는 귀찮은 일로 여겼을 뿐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관심이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제가 하는 말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도 보십니다. 아벨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예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그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았습니다. 가인은 재물을 바치며 나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물이 아무리 훌륭했다(사실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와 동기가 옳지 않았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불쾌하시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진짜 문제는 믿음 부족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 없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동기를 기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을 가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인의 반응은 그의 나쁜 성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거절에 상심하고 화가났을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의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바꾸려 힘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겸손해야 할 때 회를 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가인이 악인이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다서 11 절에서 돈을 받고 예언을 했던 빌람과 반역자 고리와 함께 가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유다는 이들이 교만과 탐욕에 굴복하여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분노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 So the LORD said to Cain, “Why are you angry? And why has your countenance fallen? 7 If you do well, will you not be accepted? And if you do not do well, sin lies at the door. And its desire is for you, but you should rule over it.”**

Now God by rights could have simply struck Cain down for his impertinent reaction. Lest we ever forget all that we have and all we are is a gracious gift that is given to us by God. This means He deserves our humble and reverential praise and adoration. He never warrants our anger and bitterness.

But God as we have already seen in Genesis is often charitable and gracious. He therefore resists punishing Cain and asks him some reasonable questions. Of course God is not asking these questions because He doesn't know the answers. He's fully aware of why Cain is angry. But He's asking them because He wants Cain to take an honest look at what really motivates him. He's hoping that they will encourage Cain to carefully look at his sinful heart and his simmering rage towards both his brother and God.

God asks him, What is it that has made you so angry? There are occasions when anger can be a good and righteous thing. God is angry for example that children are abused and exploited in this world. We should be angry about this too. So anger can be good if it is directed at evil and is in line with God's will. However as we know all too well our anger most often comes from resentment, jealousy and pride. It doesn't come from a good place and is therefore dishonouring and displeasing to God.

In Cain's case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his anger. It's unwarranted. This is because this need not be the end of the story. God's rejection of Cain is not final and absolute.

God is not saying that there is nothing he could ever do to earn God's favour. If he simply changes his heart attitude and seeks to do what is right God will accept him. Therefore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him being jealous, resentful or angry.

God then proceeds to give Cain a warning. It is a warning that remains pertinent to all of us today.

The warning concerns sin's desire for all of us. Sin you see is like a lion crouching by the door and waiting to pounce. It wants to overpower you and enslave you. To prevent this we must learn to master it and not let it control us. We can only do this by allowing God to be our master. Without God as our master we become enslaved by sin.

Did God's words have an impact on Cain? Was he convicted of his sinful behaviour? Did he decide to repent?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becomes painfully apparent in the next verse.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사되 네가 분하여 힘은 어찌 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무례함에 대해 그를 즉시 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하고 경외로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몇 가지 합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러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왜 화가 났는지 알고 계십니다. 다만 가인이 진정 무엇이 그를 화나게 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 가인이 그의 죄악된 마음과 동생과 하나님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깊이 성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네가 그토록 화가 났느냐?" 고 물으십니다. 분노가 선하고 의로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원망, 질투, 그리고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쾌하게 합니다.

가인의 경우, 그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야기의 결말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신 것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경고는 우리를 향한 죄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죄는 마치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우리를 덮치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자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를 제압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죄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깨달았을까요? 회개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 구절에서 고통스러운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 Now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We come now to what is one of the most shocking verses in all scripture. Are you shocked and horrified? The sad reality is that we exist in a world that is saturated by hatred, violence, death and murder. As a result we have become numbed or desensitized to it. We typically just shrug or remain unmoved when we see on the news that a terror attack has left dozens dead, or that someone has been raped or abused.



**my brother's keeper?" 10 And He said, "What have you done? The voice of your brother's blood cries out to Me from the ground. 11 So now you *are* cursed from the earth, which has opened its mouth to receive your brother's blood from your hand. 12 When you till the ground, it shall no longer yield its strength to you. A fugitive and a vagabond you shall be on the earth."**

As you will remember when Adam and Eve sinned God appeared to confront them. He does the same here with Cain. Also, just like with Adam and Eve God asks Cain questions. As we have previously noted God isn't really ignorant of the answers. There's nothing He does not know.

He knows exactly where Abel is and exactly what happened to him.

So what He is really doing here is offering Cain an opportunity to confess his sin and beg for forgiveness. To at least show a degree of genuine remorse. Cain however having succumbed to sin and evil is not about to do that.

His response to God's question on the whereabouts of his brother is a brazen lie. I don't know. This is yet another first in the Book of Genesis. The very first outright lie. Adam and Eve were at least ashamed about what they had done and hid from God. Not so Cain. He then in open disrespectful defiance asks God a question. In English, it strikes us as being incredibly rude. In the original Hebrew it is even worse. It comes across as though he's accusing God of even having the nerve to ask him such a question. Why are you asking me about Abel? What happened to him is irrelevant, he's not my problem. I'm not responsible for him.

Since Cain is clearly not going to confess or show remorse God moves straight into judicial mode. In rather poetic language he tells Cain that his brother's blood speaks to Him from the ground. How true that is. Every sin we commit cries out to God. The reason is that when we sin we do so against a Holy God (Psl 51:4). God cannot sit back and do nothing when sin comes to His attention.

The punishment will be suitably severe. Cain is to be cursed from the earth. Remember he had lived and worked as a farmer. But from this time on he would no longer be able to settle in any cultivated portion of the earth and live as a farmer. We should probably assume that he derived some pleasure from working the land. He would no longer be allowed to experience this. From this point obtaining what he needed to survive would be hard work.

Instead of being allowed to settle and farm the land Cain was instead condemned to live as an itinerant wanderer or drifter. A person that people would look down upon, shun and mistrust. A person we might today cruelly label as a tramp, a bum or a vagabond. Living a life destined to scratching a difficult living from the land wherever he could. Simply put it was a life without a stable future. Constantly being on the move, never able to settle and put down roots.

God's words finally got Cain's attention. The fire of anger and resentment left him. The realisation of what his future held hit him like a sledgehammer. Let's see what he has to say next.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이유를 지키는 자니이다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라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우치는 모습을 보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굴복한 가인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또 다른 최초의 사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적어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례하게 반항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로 읽어도 극단적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원문 히브리어에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감히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아벨에 대해 묻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무슨 상관이에요.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가인이 죄를 고백하거나 누우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소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가인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그분에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사편 51:4). 하나님은 죄가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침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그에 걸맞게 엄중할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더 이상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농사짓는 일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경험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는 것은 고된 노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대신, 떠돌이 생활을 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고, 멀리하고, 불신할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부랑자, 건달, 방랑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서 땅을 일구어도 근근이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안정적인 미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 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이 정신을 차립니다. 분노와 원망의 불길이 그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 And Cain said to the LORD, “My punishment is greater than I can bear! 14 Surely You have driven me out this day from the face of the ground; I shall be hidden from Your face; I shall be a fugitive and a vagabond on the earth, and it will happen *that* anyone who finds me will kill me.”**

Oh poor Cain! He feels that God is being unjust and unfair. His punishment is too severe, he can't bear it. I'm afraid I can't muster much sympathy for him, can you? Here's why. His response comes from a place of self-pity. Nowhere does he express any sadness or remorse. At no point does he repent of his brutal act and ask God to forgive him. Oh, I'm sure he felt some sadness but not over what he had done. His sadness was all self centred. He was only despondent because he had been caught and was to be punished. How often we see such an attitude mirrored today.

He should actually have been grateful that God spared him his life. At this point in time God had not issued the law regarding capital punishment. In Exodus God tells Moses that a man who intentionally strikes another down and kills him shall be put to death (Exo 21:12). Cain was clearly guilty of this.

Cain also bemoans the fact that because he is being driven out that he shall be hidden from God's face. There can be no worse punishment than to be banished from God's presence. Sin always separates us from God.

Cain here in fact repeats all that God has pronounced upon him.

He will be driven from the ground, he will be a fugitive and a vagabond and this will mark him out as a target for others. Why we might ask would others want to kill him. Well, given the small population of people that existed at that time everyone was obviously related. Therefore there would be some who would be seeking retribution. They knew what he had done to Abel and perhaps felt that God had let him off lightly. Maybe they wanted to impose their own form of justice upon him.

Let'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with the following verse.

**13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자기보다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옵소서**

## 내가 주의 낯을 보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파하며 유라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불쌍한 카인 그는 하나님께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자신의 형벌이 자기가 견디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에게 별다른 동정심을 못느끼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반응은 자기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전혀 애통해 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잔혹한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슬픔을 느꼈겠지만,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이기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발각되어 처벌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망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태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형 제도를 제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출애굽기 21:12). 가인은 분명히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쫓겨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을 한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포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는 땅에서 쫓겨나 방랑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을테니 모두 친척 관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이 아벨에게 한 짓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가인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설교를 다음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 And the LORD said to him, “Therefore, whoever kills Cain, vengeance shall be taken on him sevenfold.” And the LORD set a mark on Cain, lest anyone finding him should kill him.**

The account ends with God demonstrating His mercy. Cain hardly warranted it but God still granted it. Mercy remember is when we are not punished for something we have done. Biblically speaking it is when God doesn't punish us in a way that our sin deserves. By rights Cain probably did deserve to be caught and killed. He had brutally brought the life of his innocent brother to an end. Why should he get to live a long and “happy” life. God, however declares that He will not allow this to happen. He will personally provide protection for him. Anyone thinking of trying to kill Cain should reconsider. God's vengeance will fall on anyone killing Cain sevenfold. There is some debate regarding exactly what this means. Some argue that it means Cain will be safe for seven generations. A better explanation is that it meant that anyone daring to kill Cain would receive a punishment seven times as severe as the one given to Cain. The number seven lest we forget is the biblical number of perfection. So God is warning any would be attacker that they will receive the perfect punishment.

In order to protect Cain God sets a mark upon him. The Hebrew word used for “mark” here is the word *oth*. It might better be translated as “sign.” Anyone seeing this mark or sign will know to leave the man alone. The question people always ask at this point is what was the mark?

The truthful answer is that we simply do not know. The bible does not tell us. That hasn't of course stopped people from speculating over the centuries. A commonly held view is that it was a physical mark or sign upon the body. A “tattoo” of some kind. Ancient Judaism had its own ideas. Some Rabbis held the view that the mark was a dog. That everywhere that Cain went he was accompanied by a dog. Yes, it is a ridiculous idea. Other Rabbis taught, and it was taken up enthusiastically by

many in the medieval church that the mark was a horn that grew from Cain's forehead. You certainly wouldn't pick a fight with a guy in a bar who had a horn growing out of his head! Another view that emerged during the American slave era was that the mark of Cain was dark skin. This totally unjustified position led to the belief that black people could be mistreated and enslaved because they were descended from an evil murderer. That some within the church ever promoted and pushed this belief is shameful. The truth is that the bible is not explicit on what the mark was.

All we can say with certainty is that the mark was an effective display of God's mercy that was designed to preserve Cain from harm. And so Cain's "trial" comes to an end.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Cain leaves God's presence and begins his life of wandering.

###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기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라 하시고 기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끝납니다. 기인은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 Mercy 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기인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는 무고한 동생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겼습니다. 어찌 그가 길고 "행복한" □ □ □ □ □ □ □ □ □ □?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기인을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배나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인이 7 대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더 타당한 설명은 기인을 죽이는 자는 기인이 받은 벌보다 일곱 배나 더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7 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기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형벌을 내릴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기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몸에 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표 mark"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oth*(*oth*)입니다. 이는 "표징 sign"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표징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기인을 건드리지 말아야 함을 알 것입니다. 과연 그 표징이 무엇이였을까요?

진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추측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그 표징이 몸에 새겨진 "문신"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대 유대교에는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 어떤 랍비들은 그 표징이 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인이 가는 곳마다 개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랍비들은 그 표징이 기인의 이마에서 자라난 뿔이라고 가르쳤고, 중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열렬히 받아들였습니다. 머리에 뿔이 난 사람과 술집에서 싸움을 걸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노예 시대에 등장한 또 다른 견해는 기인의 표징이 검은 피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거 없는 주장은 흑인들이 악한 살인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학대받고 노예의 삶을 산다는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조장하고 부추긴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 표가 무엇이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표가 기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인의 "시련 trial"은 끝을 맺습니다. 다음에는 기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랑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연구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 1 Cain or Abel when it comes to worship

We saw today two contrasting attitudes when it came to worship.

In Abel, we witnessed the correct approach. An approach that involves coming humbly before the Lord in faith. It is an approach that seeks to worship in a way that honours and pleases God. In Cain, we saw the opposite. He was just going through the motions. Fulfilling his duty but without the proper motivation or attitude. He didn't care whether what he did pleased and honoured God.

So its worth us taking a moment to consider our own attitude and approach towards worship. Who do we most resemble? Are we more like Abel or Cain?

What does Cain like worship look like? Let's consider this question. Some Christians seem to believe that “worship” is just the hour or two they spend in church on a Sunday. This means that from Monday through Saturday they can live as if God didn't exist. This is not the case. Worship is a complete and total outlook and approach to life. 24 hours a day 365 days of the year are to be devoted to worship.

Some Christians seem to think that as long as you show up on Sunday you earn your points with God and are good to go. That God won't mind if you turn up late, are disinterested, fiddle with your phone, doze or stare out of the window. God is simply happy that you turned up. That's Cain like worship. God remember never looks at the worship apart from the worshipper.

Let us strive to be more like Abel. To come joyfully and humbly in faith before our blessed Lord. To desire to make Him happy and please Him with our lives.

### **1 예배에 대한 가인과 아벨의 태도**

오늘 예배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예배 방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임했습니다. 의무를 다했을 뿐, 올바른 동기나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아벨과 가인 중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가인과 같은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단지 주일에 교회에 서 보내는 한두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 전체에 대한 온전하고 총체적인 관점이고 접근 방식입니다. 하루 24 시간 1년 365일 예배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좋은 점수를 얻고, 그러면 모든 게 관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늦게 오거나, 무관심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졸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예배 방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와 예배 자체를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벨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쁨과 겸손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의를 가져야 합니다.

### **2 Get serious about sin**

When I was young my family had a little black dog called Bess. She was good and loyal family pet whose only real fault was that she enjoyed standing up at the window and barking at people on the street. This habit was very annoying. After we had had her for many years we noticed a small lump on the side of her head. At first it was quite small. About half a pea in size. Bess seemed perfectly



